1950년대 여성시의 모색과 문학적 전략*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손미영**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절대자와의 합일과 사랑의 언어
- III. 삶의 희열과 내적 생명력
- IV. 전흔(戰痕)의 치유와 여성의 어조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김남조와 홍윤숙의 초기 시를 비교 검토한다. 전후 한국의 중요한 여성시인으로 손꼽히는 김남조와 홍윤숙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발표한 초기의 시편들에서 전쟁의 상흔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한국전쟁기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한 김남조는 첫 시집 『목숨』에서 엄혹한 전쟁기의 현실을 드러낸다. 김남조는 삶을 갈구하는 걱정적인 어조의 시편들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과 영원, 그리고 존재에 대한 사유를 시작한다. 특히 전후에 발표된 시들에서 김남조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의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함으로써, 전쟁 이후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을 시도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분절된 세계에서 시인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고뇌한 결과이자, 특히 여성적 언어를 통해 모든 존재를 감싸 안고 치유하는, 이른바 여성형의 완성태가 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김남조가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 인간 사이의 화합을 이루려는 데에 비하여, 홍윤숙은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7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도리어 정제되고 지성적인 단어들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홍윤숙의 초기 시편들에는 수목적 이미지와 불의 이미지가 병존한다.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는 무성한 생명력과 연결되며 시 속의 화자는 살아있음의 희열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의 이미지가 활용된 시편들은 이후 창작된 시에서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대신 수목의 이미지가 주로 등장한다. 이는 내면에 존재한 생명력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발산하는 불의 이미지보다는 내적인 생명력과 영원성의 이미지를 지닌 나무의 이미지가 유효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홍윤숙은 내면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이에서 인간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수목의 이미지와 함께 정제된 어조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전쟁을 체험한 두 시인의 시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언어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서로 다른 방법과 언어로 모색한 까닭일 것이다. 현실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 내부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 이들에게 내면세계의 탐색은 정신적·지성적 탐색 방법이었다. 즉 이들에게 ‘시를 쓰는 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을 벗어나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을 해소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반대항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여성적’ 어조와 ‘지성적’ 어조라는 서로 다른 언어가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 여성 시인들의 시는 새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남조, 홍윤숙, 전후, 여성 시, 생명, 휴머니즘, 수목적 이미지, 존재, 사랑, 합일

1. 들어가며

1950년대의 여성시인인 김남조와 홍윤숙은 1940년대 후반에 등단하여 최근까지 창작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존재에 대한 문제에 끈질기게 천착하여왔다. 두 시인의 초기 시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현실과 충격을 극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통해 전쟁 이후의 파괴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 시인의 행적이 지닌 시간적 광범함으로 인해 그간 기존의 논의들은 주

로 두 여성 시인의 시세계를 조망하거나 그 변모 양상을 살피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김남조의 연구는 홍윤숙에 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시에서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거나¹⁾ 종교적 관점에서 종교 원리의 예술적 승화의 과정을 탐색하였다.²⁾ 이 외에 최근에는 형식적 측면에서 김남조의 시의 상징적 의미 및 소통체계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³⁾ 한편 홍윤숙에 관하여는 비교적 연구가 적은 편인데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 여성시인의 계보 내에서 홍윤숙의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후 진행된 연구는 홍윤숙의 시세계 전체를 조망⁴⁾하거나 『

1) 김해성, 「김남조론」, 『한국현대시인론』, 금강출판사, 1973; 허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정념의 기』, 삼중당, 1975; 오세영, 『현대시와 실천적 비평』, 이우출판사, 1983;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연구-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정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여성시인연구』, 평민사, 1996; 김재홍, 「김남조 작품론」, 『한국 대표시인 101인 선집-김남조』, 문학사상사, 2002.

2) 김효중, 「김남조의 시」, 『한국 현대시 성찰』, 우리문학사, 1995; 김지향, 「김남조론」, 『한국현대여류시인론』, 거목, 1990; 윤병로, 「한국시에서의 기독교와 문학」, 『시문학』, 1994.11; 엄미라, 「가톨릭시즘의 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옥성, 「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일본학연구』 34권, 2011; 「김남조의 『목숨』에 나타난 죄의식과 자기구원 의식 연구」, 『어문학』 제132집, 2016.

3) 홍미경, 「김남조 시의 창작방법 연구-몸살의 시학과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순옥, 「김남조 시의 샤머니즘적 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정동매, 「김남조 전후시에 나타난 실존의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32, 2013.

4) 김귀희, 「홍윤숙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윤숙 시 연구」, 『비평문학』 no.20, 2005; 엄경희, 「홍윤숙 시인의 삶과 시정신」, 『숭실어문』 제17집, 2001;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배옥주, 「홍윤숙 시의 어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손미영, 「홍윤숙 시 연구」, 『한민족어

여사시집』에서 『장식론』에 이르는 홍윤숙의 초기 시편들을 분석⁵⁾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였던 두 시인이 서로 다른 형식의 시를 창작한 것처럼, 최근에는 두 여성시인의 시편을 면밀히 분석하고 1950년대의 여성 시인의 지형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⁶⁾가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시인이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시화(詩化)함에 있어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생명’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여성 시인들이 인식한 1950년대의 사회와 생명력이라는 가능성을 통한 회복 의지, 그리고 이를 피력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학적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이 기존의 논의가 그간 남성의 시각에 매몰되어 남성 대타자가 바라는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비주체적인 여성상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평가⁷⁾하였던 1950년대 여성 시인들에 대한 새로운 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2. 절대자와의 합일과 사랑의 언어

김남조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김남조의 초기 시편들은 전쟁기와 전후의

문학』 74권, 2016.

5) 김인경, 『홍윤숙 초기 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40, 2013.

6)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21, 2009; 이은영,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4, 2015.

7) 맹문재, 『시와 여성성』, 『여성시의 대문자』, 푸른사상, 2011.

혼란한 사회상 속에서 탄생한 시들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발표된 시들은 엄혹한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김남조의 초기 시집인 『목숨』, 『나아드의 향유』, 『나무와 바람』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단절의 경험과 함께 이를 회복하고자 시도한 여성시인의 문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1950년의 한국전쟁기에 씌어진 시들로 이루어진 첫 시집 『목숨』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생명’에 대한 그의 고뇌가 두드러진다. 시집의 표제작인 『목숨』에서 화자는 돌맹이처럼 굴러다니더라도 죽지만 앓는 목숨을 바란다는 고백을 토로한다. 이처럼 급박한 고백의 근거에는 “목숨을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전쟁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삶조차도 그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은 “불붙은 서울에서” 그에게 당면한 최우선적 목표는 생존이다. 이로써 화자는 “반만년 유구한 세월”의 민족과 대비되는 이 “돌맹이”⁸⁾같은 개인의 목숨은 길가에 널린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갈망의 대상이 되는 역설을 발견한다. 한 존재와 생명력이라는 절박한 주제를 발견한 시인은 이제 이 엄혹한 현실을 극복해낼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지구가
 눈먼 비둘기처럼 슬퍼야 함도
 찢개진 살덩이의 아픔이어나
 그래도 붉은 火輪을 더듬어
 무수한 새날을 품어올 수 있었음은
 지구를 위한 그 하나 착한 衛星

8) 김남조, 『목숨』, 『목숨』, 수문사, 1953. p.73.

달이 있음이어라
달이 있어 이 밤도
햇빛을 여이는 설운 땅마다
달빛자락 가득가득
덮어 주기 때문이리라

밤은 어둠에 속하고
죽음은 영원에 통하는 것이라면
無에서 나온 것은
無로 돌아가고
낮보다도 밤,
생명보다도 죽음,
정돈보다도 混沌,
그리고
태양보다 달이 母體가 아닐까

-『月魄』⁹⁾ 일부

죽음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달’이었다. 붉은 화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변하지 않는 빛을 내뿜는 “착한 위성”인 달에서 찾는다. 주지하다시피 ‘달’은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달의 차고 기우는 과정은 계절의 순환과 여성의 주기를 은유한다. 때문에 고대의 몇몇 신화에서 태양보다 달을 우위에 두는 것은 모권 사회가 선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변화하는 천체인 달이 안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변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¹⁰⁾ 점을 감안한다면, 달은 소생하는 죽음이라 할 수

9) 김남조, 『月魄』, 『목숨』, 수문사, 1953, pp.90-91.

10) 달의 상징에 관하여는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있다. 이 시에서도 태양이 아닌 달을 모체로 여기는 논리는 생이 아닌 ‘죽음’에서 출발한다. 죽음이 영원과 통합으로, 무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는 인식에 이르면, 소멸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이 탄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돌맹이와 같은 생명을 갈구하던 「목숨」의 화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 또한 영원에 통하는 것이라는 명상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이제 생존에 대한 격렬한 갈망으로 인해 터져 나오던 시어들은 공포의 근원을 마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내적 탐구에 의해 정련되고 그 깊이를 더한다. 현실을 절박하게 고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당해야만 했던 존재들의 의미를 되묻는 과정에 다다른 것이다. 이제 시인의 세계에는 모든 존재에 일관된 빛을 내리는 달이 자애로운 모체이자 영원성의 한 표지로 자리한다. 그리고 삶을 향한 걱정적인 갈구에서 소멸에 대한 명상으로 그 방향을 돌린 화자는 모체인 달빛 속에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새로이 조명한다.

위 시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달과 지구가 모두 소멸한 먼 훗날을 상상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달과 지구와 내가/내 조상들 후손들이/또한 내 이웃과 이웃의 그것 또 이웃이/모두 다 하나 되어/또 다시 원소 낱알로 돌아간다면/장려한 영혼의 질서가/나머지 모든 천체를 덮으리라”¹¹⁾ 지구와 달마저도 소멸하는 종말에 대한 감각은 현재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까지 확장시킨다. 확장된 시간 내에서 개인의 존재는 조상과 후손들과 함께 ‘원소의 낱알’로, 천체의 한 구성요소로 환원된다. 영원까지 걸어진 시간으로 인하여 화자는 자연히 고양의 순간을 경험하며, 개인의 생존은 세계의 순리라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0. 참조.

11) 김남조, 『月魄』, 위의 책, p.93.

는 거대한 법칙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얻는 것이다.

한편 달과 화자의 존재는 절대자의 무한성과 유한한 인간의 관계로도 치환이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영원한 존재는 차나에 가까운 개인의 삶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절대이자 영원의 또 다른 이름이다. 김남조의 시편들에서 절대자와 영원은 개인 존재의 죽음이 흔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전후의 사회에서 화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의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절대자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는 동시에 그와의 합일을 상상함으로써 거대한 세계의 법칙을 체험하는 고양의 순간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모든 존재들을 상회하는 영원의 시선으로 세계가 재조명된다. 영원의 시선 속에서 현재의 분쟁과 폐허는 새로이 의미를 얻게 되며, 이 또한 절대자의 의지와 예정에 따라 조화로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향한다. 김남조의 시편들에서 기독교적 의미의 ‘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이에 기인한다. 세계를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절대자의 시선 속에서 인간의 고난은 축소되며, 기독교적 사랑의 힘으로 해소되는 까닭이다.

사람들은

기름값 삼백 대나리온을 시비하며

무위한 낭비를 하는 여인이니라고

서름한 이방인의

눈짓으로 돌려 서 보고

대지를 태우는 모진 띄약별은

지지듯 내려쬐는데

여인은 긴 머리채 기름에 적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노니

음향도 없고
 시간도 멈춘
 오직 태초의 고요 속에
 주를 뵈옵도소이다
 여기 주를 뵈옵도소이다
 아아 우러러 천상의 환희와
 엮디어 지상의 여인인
 이 절대의 절망……

-「나아드의香油」¹²⁾ 일부

두 번째 시집의 표제작인 「나아드의 향유」에서 시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참회하는 여인의 한 표상인 막달라 마리아를 시의 중심에 놓은 것은, 속죄하는 성녀 외에도 여러 가지를 시사하기 위함이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일곱 귀신에 쫓겨 떠돌던 여인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고 이를 알아본 성녀이자 여제자이다.¹³⁾ 그런 성녀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비난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향유를 깨트리 발을 닦을 돈을 곤궁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옳으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여인은 예수의 발을 씻기며 지고의 행복을 경험

12) 김남조, 「나아드의香油」, 『나아드의香油』, 남광문화사, 1955, pp.106-107.

13) 성경에 의하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시 속에 등장하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은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시인의 실수로 지적하기는 어렵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은 여인을 동일시하는 전통과, 이를 문학 및 미술에서 형상화하는 관습이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시 「나아드의 향유」는 시 속의 여인을 “처음으로 그 앞에 주의 모습 뵈이신/이름이여/성총의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 내에서 세 인물을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 위의 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시인의 혼동을 밝혀내기보다 ‘왜’ 마리아 막달레나가 선택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 까닭이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일체화의 감격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을 영접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성녀가 될 그녀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으나 그녀는 “서름한 이방인의/눈짓으로 둘러 서 보고” 피약별 아래에서 발을 씻기는 것에 집중할 뿐이다. 비난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사실 그녀가 ‘현재’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의식과 영혼은 ‘지금 여기’가 아닌 “태초의 고요”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완결된 시간 속에는 그녀를 마음 속 깊이 이해하는 절대자가 있으므로 그녀는 환상과도 같은 환희에 잠긴다. 시 속의 화자는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그 감격을 표현한다. “주를 뵈옵도소이다”의 반복은 여인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녀가 이미 예수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태초의 고요한 시간은 현실의 시간이 멈춘 지고의 시간이자, 모든 것이 완결된 영원이다. 이 시간 속에 놓인 예수와 여인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일종의 합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절대와의 합일을 체험함은 『월백』의 달과 지구마저 사라진 종말처럼 현실의 산재한 고통을 해소시킨다. 영원성 그 자체가 화자와 시인의 내면으로 흘러들며 만연한 죽음조차도 영원을 향한 한 단계가 된다. 물론 이는 김옥성이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고 내면에만 시선을 두”¹⁴⁾고 있는 한계를 노출한다. 하지만 전쟁기와 전쟁 이후의 폐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사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나아드의 향유』처럼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김남조의 초기 시편들에서 자주 등장한다

14) 김옥성, 『김남조의 『목숨』에 나타난 죄의식과 자기구원 의식 연구』, 『어문학』 제132집, 2016, p.215.

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여정은 여성 화자의 기다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환희로 이어진다. 『나아드의 향유』에서 마리아는 영원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으며, 『낙일』에서는 사랑하는 상대의 “느낌과 생각함과 소리침이/차례로 내 몸에 옮겨오”¹⁵⁾는 일체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¹⁶⁾이라는 고백까지 내어놓는다. 따라서 김남조의 시편들에서 사랑은 그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관문이자 화자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 때 사랑의 대상과의 합일은 사랑의 완성이자 영원과 순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엄혹한 전쟁을 체험하고 만연한 죽음 속에서 생명을 갈구하던 김남조의 세계는 이제 점차 사랑을 통한 휴머니즘의 가능성으로 향한다.¹⁷⁾ 이 사랑은 상대에게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성찰의 과정이며, 절대자를 통해 세계 내의 인간 존재의 한계를 재탐색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윤리가 부정되는 한국전쟁이라는 충격을 겪고, 이후의 물질 및 정신적 폐허와 마주한 김남조가 발견한 것은 죽음이야말로 영원에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는 깨달음이었다. 도리어 병들고 파괴된 지상이야말로 그 절박함과 갈망으로 인하여 절대자에 더 가깝다. 스스로의 결합 없음을 자부하는 율법가들보다 참회하는 죄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15) 김남조, 『落日』, 『나아드의 香油』, 남광문화사, 1955, p.19.

16) 김남조, 『태양의 刻文』, 『목숨』, 수문사, 1953. p.64.

17) 정영애는 『김남조 시의 변모양상 연구』에서 김남조 시세계를 생의 주기와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기는 실존의식과 생명의지를, 중기(4시집~10시집)의 시는 생명력의 확신과 사랑의 탐구를 주요 주제로 하며, 후기(12~16시집)시의 특징을 죽음의 긍정적 수용과 영생의 세계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남조 시인의 전체 시세계 조망과 이에 따른 시기별 구분 및 변모 양상에 대하여는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그러므로 폐허가 된 공간, 서로를 죽인 인간들은 역설적으로 영원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존재들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본질의 온전한 결합을 꿈꾸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 내의 생명과 그 본질의 의미를 시를 통해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김남조 시의 절대적 목표인 것이다.

3. 삶의 희열과 내적 생명력

홍운숙은 김남조에 비해 비교적 절제된 언어로 생명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즉, 자신의 감정을 감각적인 언어로 담아내기보다는 절제된 어조로 인간의 정신과 존재라는 본질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홍운숙 시의 특징이다. 이로 인해 문학사적으로는 일상의 감상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색까지를 절제된 언어로 시 속에 담아내는, 비교적 지성적인 경향의 여성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특히 시인의 첫 시집인 『여사시집』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현실을 극복할 생명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시집은 등단 이후 1962년까지에 이르는 시간의 진폭을 아우르는 한편으로, 각각의 시편들을 통해 생명의 본질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홍운숙의 첫 시집인 『여사시집』에 실린 시편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생명과 존재에 관한 탐색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¹⁹⁾

18) 김지향, 『한국 현대여성시인연구』, 형설출판사, 1996.

19) 『여사시집』은 1962년 간행되었으나, 등단 이후 발표된 시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1950년대에 발표된 시들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전후에 창작 및 발표된 시들을 엮은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여사시집』을 1950년대의 문학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논의들이 평가하다시피, 홍윤숙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목적 이미지이다. 그의 시세계에서 나무는 우주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여성적 상상력의 한 부분²⁰⁾이기도 하며, 동시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할 가능성으로서의 생명력이며, 영원히 이어질 세계의 법칙²¹⁾이다. 특히 『여사시집』에 실린 시 「樹木의 書」는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가는”²²⁾ 나무의 생명력을 그려낸다. 이 시에서 생명력은 “벽찬 목숨의 계절”을 인내하는 내면의 에너지로 드러난다. 이러한 수목적 생명력의 이미지는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 『풍차』에 이르면 「과원일기」연작으로 이어지며 역경을 인내하는 삶의 방식과 인간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어 홍윤숙 시의 주요한 테마 중 하나로 자리한다. 그런데 초기에 해당하는 홍윤숙 시편들에서 나무의 생명력은 ‘불’의 이미지와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래의 시를 보자.

누가 알았으리
마지막 타는 불꽃의 뜨겁고 화려함을
온 하늘 불 살라도 못다 탈 불

이는 이 없는 깊은 내 안에
산불처럼 피어나

연구는 김현자,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1961)』, 오세영 외, 『한국 현대시사』, 민음사, 2007;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21, 2009; 이은영,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4, 2015. 등이 있다. 본고 또한 이러한 기존 연구의 평가에 따라 홍윤숙의 초기 시편들을 1950년대 전후의 현실에 깊은 영향을 받은 문학으로 판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21, 2009.

21) 손미영, 『홍윤숙 시 연구』, 『한민족어문학』 74권, 2016.

22) 홍윤숙, 『수목의 서』, 『麗史詩集』, 동국문학사, 1962. p.35.

몸을 태우는, 저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꽃 한송이

-「불」 일부분²³⁾

인용한 시 「불」이 그려내는 광경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하늘을 온통 뒤덮은 황혼 무렵이며, 다른 하나는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꽃 한 송이의 모습이다. 이 두 이미지는 일견 전혀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사실 ‘소멸의 순간’이라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한다. 시인의 눈에 포착된 것은 꽃이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에서부터 등걸이나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꽃 한 송이까지도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운명에 맞게 하는 찬연한 비극의 풍경이다. 소멸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찰나를 이 시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불의 이미지가 넘치는 생명력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황혼의 풍경과 곧 떨어질 한 송이 꽃의 모습은 쓸쓸함이나 고독감이라는 일반적인 정서와 달리 강인한 생명력의 표출과 그 순간으로 전환된다.

그 뿐인가. 이 소멸의 불이 타오르는 순간에, 시인은 일종의 황홀경마저도 경험한다. 불처럼 타오르는 풍경 혹은 그 생명력의 강인함을 바라보는 감격은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이는 이 없는 깊은 내 안”의 열정과 공명하며 “산불처럼 피어나/몸을 태우는” 일체감으로까지 진전된다. 이러한 정신적 고양의 순간은 화자로 하여금 세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꽃도 열매도 대지에 뿌리 깊은/아늑한 등걸까지도/남김없이 불 태우려 하는” 세계는 화자에게 적대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된다. 강력한 일체감으로 인해 타오르는 세계 자체가 그 자신의 내면의 풍경이자, 화자 그 자체로 정립되는 것이다.²⁴⁾ 불타는 세계 속에서 포착된 한 송이의

23) 홍윤숙, 「불」, 『麗史詩集』, 동국문학사, 1962, p.20.

작은 꽃은 그 소멸의 순간에 불꽃놀이처럼 명멸하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타는 세계 그 자체로 완결된다. 이러한 생명의 발산과 합일의 과정은 세계 전체를 초월적 세계 혹은 대자연으로 인식하게 하는 새로운 초월적 자아를 발견하게 하며, 이를 포착한 화자로 하여금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게끔 한다.

이처럼 온전한 일체감이 도래하는 순간은 알베르 베갱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들과 비교될 수 있는 엑스터시이고 고등한 직관”이다. 이 직관을 통해 “섬광 같은 번득임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지각”²⁴⁾ 하는 것이다. 순간의 번득임을 통한 근원과의 합일은 화자로 하여금 생명력으로 충만한 내적 체험을 실감하게 한다. 이는 신비로운 순간의 경험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지각하고, 초월적 기의(signified transcendantal)을 향한 의미론적 탐색을 개시하는 계기가 된다. 홍운숙의 시에서도 직관의 순간들을 통해 초월적 의미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들은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시 『항가(抗歌)』의 화자는 한여름의 생명들을 바라보며 그 뜨거운 생명력에 대한 감격을 격한 어조로 노래한다. “짐짓 조그마한 지혜와 낡은 지성들/ 가없이 숨어버린 원시의 언덕/ 에 이는 별거벗은 육체의 범람이외다”²⁶⁾라는 표현처럼, 지혜와 지성은 이 강렬한 원시적 생명력에 비하면 초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한 덩이 화환(火環)처럼/피어오르는 목숨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력을 연료로 불타오르며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증명한다. 이는 생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한 방식이다. 이 순수한 생명

24) 흥미로운 것은 생명 존재들과의 일체감으로 인한 일종의 엑스터시의 순간은 허영자의 초기 시편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이들 여성 시인들의 영향관계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여성 시인들에게 ‘생명’과 초월적 자연과의 합일 이 의미에 관하여 주목하게 한다.

25) 알베르 베갱, 이상해 옮김, 『낭만적 영혼과 꿈』, 문학동네, 2001, p.331.

26) 홍운숙, 『抗歌-盛夏』, 앞의 책, p.17.

력의 분출에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놓인 것은 오롯한 한 존재이며, 동시에 한 세계 즉,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동시에 포용하는 순수한 의미이다. 때문에 진정한 근원적 의미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은 “조그마한 지혜와 낮은 지성들”을 벗어나 자연의 생명력과 일체감을 느끼는 고도의 직관적 감응을 통해 비로소 이뤄진다. 그리고 각 존재 내의 생명이 서로 공명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전후의 공간에서 인간은 그 존재 의미의 실마리를 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각은 홍운숙의 시에서 타오르는 불의 상승 이미지와 결합하여 엑스터시와 같은 희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도취의 순간은 다시 각 존재가 지닌 생명력을 향한 강한 신뢰감으로 표출된다.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시에 직관을 가능케 할 일체감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불의 상승하는 이미지가 나무에 비해 비교적 유효하다. 따라서 홍운숙의 초기 시들에는 수목적 이미지와 함께 불의 이미지가 병존한다.

久遠한 마음의 하늘 水晶의 바다를
머리에 이고
아득히 바라보는 바람 없는 位置에서
묵묵 自盛하는 나무의 歷史

살아 있음은 오직 하나의 權能
우리 옆에 이웃 있음은 또 하나
다사한 榮光

내 마음 줄 그 한 사람 있음이라
크나큰 生命의 饗宴이여니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리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리
 나와 더불어 이 世上 어느 한 구석에
 살아 있다는
 다만 살아 있다는 그것만으로
 다행한 우리들

우리는 慾望의 밭에 핀 흰빛 虛無를
 거두며 살아온 無償의 園丁

-「生命의 饗宴」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일체감이나 불로 표현되는 강렬한 엑스터시의 경험들은 두 번째 시집인 『풍차』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풍차』에는 「과원연작」에 천착함으로써 나무와 수목적 이미지를 통하여 생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인용한 시 「생명의 향연」은 홍윤숙의 시세계에서 수목적 이미지가 주요 이미지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생명의 향연」은 「항가」나 「불」에 비해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살아 있음’의 의미를 전한다. 소멸하는 존재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끼며 그 순간을 무한히 확장시키던 시의 세계는 이제 생을 권능이라고 역설한다. “다만 살아 있다는 그것만으로도/다행한 우리들”이라는 화자의 판단은 인류라는 보편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존재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하며 다사한 광영이라고 말하는 시의 언어에는 각 존재들을 향한 따스한 긍정이 담겨져 있다. 소멸의 순간에서도 불처럼 타오르는 강력한 생명력을 발견하던 화자의 시각이 “묵묵 자성하는 나무의 역사”로 전환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따라서 표출되고 발산되는 에너지에서 내부의 생명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강력한 내적 경험을 통해 세계 내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근원을 향한 탐색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내부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으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수목의 이미지는 매우 유효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특히 이 시 「생명의 향연」은 『여사시집』의 첫머리에 실린 시이다. 『여사시집』의 구성상 1950년 이전에 문예지에 발표된 시편인 「까마귀」, 「가을」, 「환별」 등이 시집의 후반부에, 1950년대에 창작된 시편이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권두에 실린 이 시가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한편, 이후의 방향성을 예고하고자 배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부 세계의 강력한 경험, 특히 존재의 완전함과 살아있음의 희열은 내적인 명상을 통해서 비로소 비옥해진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죽음이 산재한 전후의 공간에서 소멸하는 존재들 속에서도 생명력을 직관하던 시인의 세계는 내면으로 하강한다. 단절된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생명력과 삶, 존재의 근원을 향한 진정한 탐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화(詩化)하기 위해 수목의 이미지가 전면적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안으로 익는 열매에서 “목숨의 본연한 모습”²⁷⁾을 찾아내며, “바람 속에 피 흘리는 십자가”²⁸⁾처럼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오랜 삶을 견디는 나무를 응시하는 것이다.²⁹⁾

27) 홍윤숙, 「과원일기3」, 『풍차』, 신흥출판사, 1964, p.145.

28) 홍윤숙, 「장식론4」, 『장식론』, 하서출판사, 1968, p.34.

29) 인간에 비해 수명이 긴 나무의 이미지는 또한 ‘영원’의 시간과도 맞닿으며 초월적 이미지를 선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월적 이미지로 인하여 홍윤숙의 시에서 수목은 영원성의 시간과 연결되어 역설적으로 잘나에 가까운 인간의 삶을 고찰하게 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각각의 존재는 살아있음으로써 그 의의를 얻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생명력은 또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초월적인 단 하나의 의미로 향한다. ‘생’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충만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전쟁 이후의 황폐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아닌, 죽음과 소멸이라는 근원적 문제와도 맞닿는다. 『여사시집』 내에 병존하는 불과 수목의 이미지는 전후 현실의 회복 가능성의 모색에서 시작되어 인간 보편의 문제로 이어지는 시인의 내적 성찰의 여정과, 이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시인의 전략을 드러낸다. 무려 15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아우르는 홍운숙의 첫 시집을 다시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4. 전흔(戰痕)의 치유와 여성의 어조

시는 순간에서 영원을 포착해내는 문학 장르이다. 유한한 존재를 성찰함으로써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보편적 의미를 발견하는 고도의 성찰 과정은 모든 언어를 뛰어넘은 초월적 기의를 향한 탐색과도 맞닿아 있다. 존재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김남조와 홍운숙의 시는 시의 본질적 의미 탐구에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 그 문학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의 역사적 질곡과 거대한 단절을 경험한 이들의 문학이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훼손된 인간성의 회복으로 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절박하게 목숨의 소중함을 외치던 김남조 시인이 전쟁 이후 죽음과 그 공포의 근원을 향해 시선을 돌린 것, 그리고 절대자와의 합일된 시선을 통해 세계를 재조망하였던 것 또한 폐허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함이었다. 즉, 영원의 세계를 향한 회구와 동일시의 의지는 각 존재의

내부에서 신과 연결된 중요한 속성인 생명을 발견하고 이로써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한편 불처럼 타오르는 생애의 의지와 생명력에 도취되었던 홍윤숙 시인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력의 탐색을 위해 수목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결국 이들의 문학적 전략들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할 가능성을 전달하기에 유용한가에 관한 고뇌의 결과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상대와의 합일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통합의 방식을 꿈꾸었던 김남조의 시편들이 홍윤숙에 비하면 그 어조가 더욱 여성적 어조를 선택한 것 또한 주체적으로 선택된, 문학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나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택한 김남조의 시어(詩語)들은 서정성과 상대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감성으로 채워져 있다. 『靜謐한 노래』의 화자는 사제를 만나러 간 사랑의 상대를 기다리며 “당신이 돌아올 제면/우리의 소망 하늘에 바쳐지”³⁰⁾리라고 노래하며, 『연가』에서는 “돌과 같은 침묵”³¹⁾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처럼 김남조의 시에는 상대를 그리워하며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인고의 여성이 주로 등장한다. 화자들의 태도는 일견 매우 순종적인 여성상, 남성들에 의해 주조된 이상적인 여성의 형상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단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적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도 하다. 남성적인 가치 획득의 방식으로 인식되어왔던 경쟁이나 폭력과 반대되는, 만물을 포용하고 치유

30) 김남조, 『靜謐한 노래』, 『나야드의香油』, 남광문화사, 1955, p.138.

31) 김남조, 『연가』, 『나무와 바람』, 정양사, 1960.

하는 여성적 혹은 모성적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이러한 까닭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김남조의 시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나 모든 단절이 해소된 이상적인 공간은 여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³²⁾ 모체로 인식되는 달이나, “백제관음의 손끝처럼”³³⁾ 따뜻한 봄, 어머니로 불리는 밤 등은 화자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 또는 대상으로서 시 속에 자리하며, 시적 화자의 정신적 상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소와 소통의 이미지들은 여성적 어조를 통해 시에 재구성 되는데, 단정하게 구현된 여성의 언어는 시가 추구하는 내면 존재의 모색에 집중하게끔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들 화자가 사랑의 완성을 통해 세계의 단절을 극복할 휴머니즘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에 내포된 청자는 남성일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김남조의 시는 청자보다는 화자 지향의 시가 다수를 차지한다.³⁴⁾ 내포 청자가 남성인 시에서도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에 닿고자 하는 방식은 남성 대타자에 의지함이 아닌, 여성 화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사랑의 완성’을 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

32) 김남조는 자신의 생애를 되짚는 글들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고백한 바 있다. 가톨릭 신자가 된 것 또한 어머니의 영향이었으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 싸움 중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고까지 적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민감하였던 김남조의 시편들이 만물을 포용하는 긍정적 모성(혹은 여성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김남조의 생애에 대하여는 김남조, 『예술가의 삶』, 해화당, 1993; 『세 갈래로 쓰는 나의 자전예세이』, 『시와 시학』, 1997년 가을호 참조.

33) 김남조, 『早春』, 『목숨』, 수문사, 1953, p.51.

34) 정영애는 89편의 김남조 시를 화자 지향과 청자 지향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어조에 따라 화자 지향형이 57.3%, 청자 지향형이 25.8%, 화제 지향형이 14.6%인 화자 지향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적 화자가 주체가 되어 대화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화자 중심적 대화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남조 시의 소통체계의 분석은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성 대타자에 의지하여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였다는 비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리어 현실 내에서 여성의 위치에 민감한 관심을 가졌던 김남조 시인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져 온 포용과 인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68년 『여성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김윤식의 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회를 맡은 김남조는 근현대의 여성 문인들에 대하여 “걸잡을 수 없는 감정의 비애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사람들”³⁵⁾로 평한다. 그의 눈에 포착된 근대의 여성 문인들은 개인적인 오해와 함께 세간의 불합리한 시선에까지 노출되는, 이중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김명순의 경우가 이를 드러내듯, 남성들이 주도하는 문학사 내에서 여성의 언어는 자칫 타락의 증거이자 지탄과 조롱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김남조는 성별과 종족을 초월한 모든 존재 내에 자리한 생명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인내’와 ‘헌신’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화자를 선택한다. ‘예수’와 ‘마리아’와 같은 성서의 인물들이 전략적으로 선택되어, 시 속에서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생명을 감싸 안고 헌신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는 시인의 소망이 투영된 존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홍운숙 또한 생명력을 통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삶과 죽음, 순간과 영원, 유한자와 무한자리는 역설적인 관계의

35) 막무가내의 誤解 속에서 또 스스로 開花하는 하나의 커다란 潮流를 誤解하면서 자칫 지나친 過渡期的 思想의 解釋에서 生活相이 아주 亂脈相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슬한 傷處와 이쁨과 困辱을 겪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當時 글을 쓰기 시작하던 분들, 羅惠錫 金一葉같은 분들은 僧房으로, 절간으로 隱遁해서 避해 가고 어떤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女流文人은 「죽음의 讚美」라는 노래를 부른 後에 玄海灘에 스스로 몸을 던지기도 하면서 걸잡을 수 없는 感情의 悲哀와 混亂 속에서 스스로 十字架를 지고 걸어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담 『여성과 문학』, 『아세아여성연구』 제 7권, 1968, p.123.

긴장은 그의 미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인식이었다. 그의 시편은 도처에 만연한 죽음에 작은 존재들의 생명력에 대항한다. 폐허 속에서도 불처럼 타오르는 강력한 생명들을 바라보며 화자는 일종의 엑스터시까지 경험한다. 이 체험은 죽음보다 강렬한 생명력을 긍정하고, 이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홍운숙 초기 시의 중요한 장면들이다. 생명력을 뿜어내는 존재들과의 순간적인 일체감은 시 속의 화자로 하여금 내면에 가득한 생명력을 감각하게 하는 희열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시를 읽는 텍스트 바깥의 독자들에게까지 그 열정과 흥분,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강렬한 긍정을 가져다주는 까닭이다.

그러나 전후의 공간에서 홍운숙은 생명력을 강렬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내부에 존재하는 강인함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는 발산하는 에너지에 도취하는 방식에서 내면에 자리한 생명력을 살피고, 그 근원을 향한 탐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수목의 이미지가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때문에 홍운숙의 시에서 수목의 이미지는 생명력과 영원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꼽힌다. 예컨대 「과원일기」 연작에서 화자는 나무를 통해 “목숨의 본연한 모습”을 발견하며, “인간의 과원에/무수히 맺혔다 떨어지는 꽃잎”³⁶⁾으로 사람의 삶을 표현한다. 이는 나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지닌 생명력을 인간 개인으로 은유함으로써 이들 유기체가 거대한 하나의 세계인 나무를 구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개인의 존재는 시들어 사라지더라도 나무라는 세계 내에서 개인의 본질은 이어지며 이는 또한 보편과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쟁 이후의 황폐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생명력에 닿아있다는 점에서 김남조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김남조의

36) 홍운숙, 「과원일기」, 『풍차』, 신홍출판사, 1964, p.138.

시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인내와 헌신의 여성상을 선택한 것과 달리 홍윤숙의 시는 수목의 이미지와 단호하고 지성적인, 비교적 ‘남성적인’ 어조를 선택한다. 특히 의지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김남조에 비해 더 이성적이고 강건한 시어를 띤다. 강건한 어조는 화자의 생각을 더욱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의지와 존재 내에 자리한 생명력에 관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얻어낸다. 더 나아가 인간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수목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여성시의 특성으로 인식되었던 감상성과는 다른, 강건한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수목이 남성 상징으로 은유됨을 감안한다면, 존재와 보편, 세계 회복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홍윤숙은 비/여성적인 문학의 언어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50년대의 여성시인인 김남조와 홍윤숙은 남성적 상징의 극단에 놓인 전쟁과 분쟁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의식과 ‘생명’이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폭력의 시대를 회복하려하였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회복을 꾀하는 이들의 시도는 이른 시기의 에코페미니즘(Echo Feminism)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여성시가 1950년대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여성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의식과 키워드를 공유한 두 여성시인이 다른 성별적 특성을 지니는 어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김남조가 여성의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여성성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면, 홍윤숙은 비교적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존재의 의미와 그 본질을 살핌으로써 죽음과 폭력의 시대를 새로이 이해하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 김남조와 홍윤숙의 문학적 전략은 1950년대 한국 여성시의 방향성 모색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시도들에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지금, 여기에 관한 당대적 문제의식이 기반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김남조와 홍운숙은 한국전쟁의 엄혹한 현실을 겪었으며, 이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창작을 지속해온 여성 시인들이다. 이들의 시들은 전쟁 중의 충격과 정전 이후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로의 감성적·정신적 흐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두 시인은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서로 다른 형식의 시를 창작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여성문학장의 다채로운 양상을 드러낸다.

본고는 1950년대 김남조와 홍운숙의 초기 시들을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이들 여성 시인의 현실 인식과 이에 따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살펴본다. 김남조는 첫번째 시집 『목숨』에서부터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당시 현실의 절박함을 표현한다. 이후 생명의 근원과 그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적 어조를 주로 활용하여 영원과의 합일과 이를 통한 현실의 초극 의지를 노래한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생명’이라는 보편의 차원에서 해소하고 동등한 존재들 사이의 사랑의 언어로 진실한 소통을 통해 현실의 문제 해결을 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김남조가 여성적 어조와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져왔던 인내와 사랑의 어법을 활용하였던 것에 비해 홍운숙은 강인한 어조로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해나간다. 그 또한 1950년대의 단절되고 상처받은 현실을 회복시킬 가능성을 생명에서 찾는다. 특히 그의 초기 시에서 불의 이미지를 활용한 강렬한 생명력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홍운숙 시가 생명에서 전혼 회복의 가능성

을 발견하는 유효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불의 이미지와 생명력과의 합일을 통한 엑스터시의 묘사에 머무르기보다 수목적 이미지를 선택함으로써 보편과 개인, 혹은 영원과 찰나적 존재로 그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간다. 이처럼 그가 비교적 남성적인 이미지와 어조를 사용한 것은 현실의 극복 의지와 아울러 이를 인류 보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문학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그의 문학적인 전략은 여성시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을 깨는데 얼마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통한 현실 극복과 존재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시인의 시 세계는 모두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게 내제되어 있다. 일견 이들의 시는 생명과 존재의 근원에 관한 내면적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에 관한 객관적 성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며 이들의 시적 모색의 출발점에는 한국전쟁이라는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뒤흔드는 전환과 폐허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과 키워드를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식과 언어로 창작된 이들의 시는 여성 문인들이 서로 다른 방식과 문학적인 전략을 시도하며 그려낸 1950년대 한국 여성 문학의 다채로운 궤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조, 『목숨』, 수문관, 1953.
 김남조, 『나야드의香油』, 남광문화사, 1955.
 김남조, 『나무와 바람』, 정양사, 1960.
 홍운숙, 『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홍운숙, 『風車』, 신흥출판사, 1964.
 홍운숙, 『裝飾論』, 하서출판사, 1968.

2. 논문 및 단행본

- 김귀희, 「홍운숙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귀희, 「홍운숙 시 연구」, 『비평문학』 no.20, 2005.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연구-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운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김옥성, 「김남조의 『목숨』에 나타난 죄의식과 자기구원 의식 연구」, 『어문학』 제132집, 2016.
 김옥성, 「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일본학연구』34권, 2011.
 김인경, 「홍운숙 초기 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40, 2013.
 김재홍, 「김남조 작품론」, 『한국 대표시인 101인 선집-김남조』, 문학사상사, 2002.
 김지향, 『한국현대여류시인론』, 거목, 1990.
 김지향, 『한국현대여성시인연구』, 형설출판사, 1996.
 김해성, 『한국현대시인론』, 금강출판사, 1973.
 김현자,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1961)」, 오세영 외, 『한국 현대시사』, 민음사, 2007.
 김효중, 「김남조의 시」, 『한국 현대시 성찰』, 우리문화사, 1995.
 엄경희, 「홍운숙 시인의 삶과 시정신」, 『송실어문』 제17집, 2001.
 엄미라, 「가톨릭시즘의 시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윤병로, 「한국시에서의 기독교와 문학」, 『시문학』, 1994.11.
 맹문재, 『여성시의 대문자』, 푸른사상, 2011.
 배옥주, 「홍운숙 시의 어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세영, 『현대시와 실천적 비평』, 이우출판사, 1983.
- 오윤정, 『홍윤숙 시에 나타난 ‘타관’의 공간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vol.38, 2016.
-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21, 2009.
- 이순옥, 『김남조 시의 샤머니즘적 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은영,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4, 2015.
- 정동매, 『김남조 전후시에 나타난 실존의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32, 2013.
-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여성시인연구』, 평민사, 1996.
- 허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정념의 기』, 삼중당, 1975.
- 허영자·한영옥,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문학아카데미, 1997.
- 홍미경, 『김남조 시의 창작방법 연구-몸살의 시학과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3 - 사랑의 등정』, 새물결, 2015.
-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한길사, 2007.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0.
- 알베르 베갱, 이상해 옮김, 『낭만적 영혼과 꿈』, 문학동네, 2001.

Abstract

Search and Literary Strategy of Female Poetry in the 1950s

-The poems of Kim Nam Jo and Hong Yun Suk-

Son, Mi-yeong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poems of Kim Nam Jo and Hong Yun Suk, who are considered important female poets of postwar Korea who sought to overcome the scars of war in the early poems of the 1950s and 1960s. Kim Nam Jo began her creative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War, revealing the harsh realities of the war period in her first poems. She began to explain death, eternity, and existence by going one step further while discussing of life craving for life. In particular, in her poems published in the postwar period, Kim Nam Jo pursue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through the communication of real existence by pursuing unity with love objects through the voices of female speakers. This work resulted from agonizing about the role of the poet in the segmented world and attempted to become a so-called gendered form that embraced all beings, especially through feminine language.

In contrast to Kim Nam Jo's attempts to achieve harmony among human beings through feminine tones, Hong Yun Suk mainly uses refined and intelligent words. Especially in her early poems, there is a coexistence of the image of the purposive purpose and the image of fire; the image of a blazing fire is linked to the vitality of life, and the narrators in the early poems experience the joy of being alive. However, Hong Yun Suk gradually used the image of fire less often in her later poetry and primarily used the image of the tree instead because trees, with their image of inner vital force and eternity, are more effective than radiating fire for revealing the essence of existence and vitality existing inside. Therefore, Hong Yun Suk expressed the inner strength of vitality and used the refined tone together with the image of the tree to reveal the human will and meaning of existence.

The poetry of these two poets who experienced the war proceeded in the same direction, so the differences in their linguistic characteristics could be because of the different methods and language they used to recover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For those who believe it is best to reveal human beings' inner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eality, the search of the inner world was mental and intellectual. In other words, for these women, poetry was related to the nature of human beings, which resolved human tragedies beyond the nation or state levels. In this process, the women strategically chose different languages, the "female" tone and the "intellectual" ton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in so-called opposition. In this respect, the poetry of female poets of the 1950s needs to be re-illuminated.

Key Word : Kim Nam Jo, Hong Yun Suk, Postwar, Female poets, Women's poems,
Arboreal image, Existence, Love, Unity, Humanism

이름: 손미영

소속: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전자우편: myshon@kw.ac.kr

이 논문은 2017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